

LGD, CES서 240Hz RGB OLED 패널 공개 “색 번짐·왜곡 줄인 모니터 신기술”

RGB 스트라이프 구조로 화질 개선
고주사율에도 선명한 화면 구현
게이밍·전문가용 시장 동시 겨냥
OLED 모니터 기술 리더십 강화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 240Hz RGB(레드·그린·블루) 스트라이프 구조가 적용된 모니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선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RGB 스트라이프 구조로 240Hz 고주사율을 구현한 27인치 4K 모니터용 OLED 패널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RGB 스트라이프 구조는 빛의 삼원색인 RGB 서브픽셀을 나란히 배열한 구조로, 가까운 거리에서도 색 번짐, 색 프린지 등 왜곡 현상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전에도 RGB 스트라이프 방식의 OLED 패널은 있었지만 최고 주사율이 60Hz 수준에 그쳐 게이밍 모니터로 사용할 수 없었다.

LG디스플레이가 이번에 공개하는 제품은 RGB 스트라이프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주사율을 240Hz까지 끌어올린 최초의 제품으로, 특화 기술인 DFR을 적용해 사용자가 직접 고해상도 모드(UHD 240Hz)와 고주사율 모드(FHD 480Hz)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제품은 고주사율을 바탕으로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FPS 게임 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 윈도우 등 운영체제 및 폰트 엔진



240Hz RGB 스트라이프 구조가 적용된 LG디스플레이 모니터용 OLED 패널. /LG디스플레이

에 최적화돼 가독성 및 색 정확도가 높다. 또 160ppi(1인치당 픽셀 수)의 높은 픽셀 밀도로 섬세한 표현력도 갖췄다.

LG디스플레이는 하이엔드 게이밍 모니터 및 전문가용 모니터 패널에 신규 픽셀 구조를 선도입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CES 2026에서 적극 홍보하여 고객사 및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기존 하이엔드 게이밍 OLED 모니터 패널은 주로 백색 소자가 포함된 RGBW 구조나, RGB 픽셀을 삼각형으로 배치한 트라이앵글 구조를 사용해 왔다.

LG디스플레이는 모니터 환경에 최적화된 신규 패턴을 개발하고, 픽셀에서 빛이 나오는 면적 비율(개구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끝에 RGB 스트라이프 구조와 고주사율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LG디스플레이는 전세계 모니터용 OLED 패널 시장의 약 30%를 양산하며 적극적으로 하이엔드 모니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현재 양산되는 게이밍 OLED 패널 중 최고 주사율, 응답속도, 해상도 등 주요 스펙에서 모두 세계 최고 타이틀을 확보하는 등 압도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LG디스플레이이현우대행사업부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OLED 모니터 패널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력이 뒷받침 돼야한다”며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기술, 고객사가 원하는 기술, 사업성 있는 기술에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류재철 “고객 중심 실행력으로 격차 만든다” (LG전자 신임 CEO)

신년 메시지 통해 성장 전략 제시
속도·AI·B2B 중심 경쟁력 강화 주문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본원적 경쟁력을 다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하며 LG전자의 전략과 실행력이 시장에서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고객 중심의 철저한 준비와 실행 속도로 경쟁력의 격차를 만들어 온 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해 다시 한번 경쟁의 판을 바꾸자.”

류재철 LG전자 신임 CEO(사진)는 23일 신년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위기 속에 더 큰 기회가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다.

아울러 류 CEO는 5대 핵심 과제로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 ▲질적 성장 가속화 ▲지역 포트폴리오 건전화 ▲새로운 성장기회 발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제시했다.

먼저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키워드로 속도를 꼽았다. 류 CEO는 “치열해진 경쟁 환경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은 속도”라며 “제품 리더십 측면에선 핵심 부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닝 테크’를 빠르게 사업화해 시장의 판을 바꾸고,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객가치, 사업 잠재력, 기술 경쟁력 관점에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자는 의미다.

다음으로 질적 성장 가속화를 위한 기업간거래(B2B)·솔루션·소비자직접판매(D2C)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내세웠다. 그는 “상업용 냉난방공조(CAC)·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 등의 B2B 사업, 웹OS와 같이 디바이스와 연계해 사업 영역을 넓히는 솔루션 사업, 구독·온라인브랜드샵(OBS) 등 고객 접점을 확보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D2C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수익성 기반 성장을 확실히 견인하는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 “고객사 온라인 주문·조회 한번에”

‘마이 포스코’ 통해 업무 편의성 강화

포스코가 고객사들을 위한 제품 주문 디지털 플랫폼을 개편했다.

포스코는 최근 기존 제품 홍보 페이지와 온라인 주문·출하 채널(e-Sales)을 통합한 ‘마이 포스코(My POSCO)’를 공식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기본 설계에 착수했으며, 올해 제작과 테스트를 거쳐 지난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은 고객 의견을 반영해 제품 정보 제공, 업무 효율, 사용자 편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여러 채널에 흩어져 있던 제품 카탈로그와 인증서 등을 한 곳에 모아 정보 접근성과 일관성을 높였다. 또 제품·산업 분류와 키워드 검색 기능을 도입해 주요 규격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색 기능을 도입해 주요 규격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건설·에너지·조선 등 주요 산업에 쓰이는 철강 소재·부품 정보를 3D 콘텐츠로 제공해 용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으며, 제품별 제조 공정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해 철강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포스코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객사는 플랫폼에서 주문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주문·생산·출하 단계별 알림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앱도 제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

삼성SDI,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 본격화

KGM과 손잡고 배터리팩 공동 개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적용 추진
차세대 전기차 탑재·사업화 협력

삼성SDI가 국내 완성차 업체 KGM빌리티(KGM)와 손잡고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기술 개발에 나선다. 원통형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공동 개발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과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삼성SDI와 KGM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KGT타워에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삼성SDI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셀을 적용한 배터리팩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차세대 배터리팩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업무 교류도 병행한다.

공동 개발된 배터리팩은 향후 KGM이 생산할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양사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략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비롯해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력을 확대하며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바탕으로



22일 KGT타워에서 열린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최익규 삼성SDI 소형사업부장 부사장(왼쪽 세번째)과 광정현 KGM 사업전략부부장 사장(왼쪽 두번째)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삼성SDI

긴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 성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향상된 안전성과 내구성을 통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했다.

삼성SDI는 고용량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 양극재와 특허 소재인 SCN(실리콘탄소노노복합체) 음극재를 적용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을 줄이고 수명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탭리스(Tabless) 구조를 적용해 내부 저항을 낮추고 전류 흐름을 최적화함으로써 고출력과 급속 충전 성능을 강화했다. 열 확산 구조 개선과 제조 공정 고도화를 통해 안전성과

품질 신뢰성도 높였다.

삼성SDI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동시에,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배터리 사업의 매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외 전기차 시장에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차세대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서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

‘더 퍼스트룩’ 예고 영상 공개
전 제품·서비스에 AI 통합

삼성전자가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AI 기술을 통합해, 고객의 AI 경험을 지원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삼성전자는 ‘더 퍼스트룩(The First Look) 2026’ 개최를 앞두고, 행사의 주제를 알리는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더 퍼스트룩 2026의 주제는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다.

예고 영상은 다채로운 빛과 선을 활용해 더 퍼스트룩에서 공개될 신제품의 실루엣을 형상화 하며 행사의 기대감을 높인다. 영상 속 빛과 선은 삼성전자의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통합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AI 기술을 상징한다. 영상 말미에는 제품을 감췄던 빛이 행사

가 열릴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로 퍼져 나가며 이번 행사의 주제가 공개된다.

삼성전자는 ‘CES 2026’ 개막 이틀 전인 오는 1월 4일 오후 7시(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에서 발표 행사를 열고 더 퍼스트룩 2026의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후 1월 7일까지 4일간 전시와 기술 포럼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DX 부문장)을 비롯해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용석우 사장, DA사업부장 김철기 부사장이 무대에 올라 사업부문별 고객 경험 혁신 전략을 소개한다.

삼성 기술 포럼은 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AI, 가전, 디자인 등을 주제로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차현정 기자